

1851년 5월

프랑스 나르발호, 비금도 해역에 난파하다
비금도 주민들, 난파 선원들을 보살피다
환송회 날 샴페인과 막걸리가 짤!

...

2024년 5월

신안과 프랑스의 우정,
신안 삼막 예술축제로 부활하다

그림 우용민 관련글 본문 48쪽

2024 여름 Vol. 91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 16회

윤숙희 박순홍 차지원
노동운동가 이용석, 가거도 나한송

생생현장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

1004섬 신안 팔금면

정책특집 손잡는 1004섬, 신안군 국내외 연대 현황



지난 호 & 다운로드

신안
소식
1004섬



신안
햇빛연금
소득

사옥도 발전용량 50MW

주민 1인당 수익
2022년 4회 총 240~88만원
2023년 4회 총 240~88만원
2024년 1회 총 60~22만원

조합원 545명 4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1.17.

임자도 발전용량 99MW

주민 1인당 수익
2023년 4회 총 160~40만원
2024년 1회 총 40~10만원

조합원 2,988명 24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8.10.

지도읍 발전용량 100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2회 총 52~22만원
2022년 4회 총 96~44만원
2023년 4회 총 96~44만원
2024년 1회 총 24~11만원

조합원 3,322명 33개 마을

안좌도 발전용량 288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144~48만원
2022년 4회 총 144~48만원
2023년 4회 총 272~68만원
2024년 1회 총 68~17만원

조합원 2,517명 28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9.11.

자라도 발전용량 24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204~68만원
2022년 4회 총 204~68만원
2023년 4회 총 272~68만원
2024년 1회 총 68~17만원

조합원 276명 2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19.9.6.

현재 수익금 배당지역

비금도 발전용량 20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5년 연간 112~28만원

전체 주민 3,568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4.4.

신의도 발전용량 15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5년 연간 192~48만원

전체 주민 1,485명

증도 발전용량 1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5년 연간 160~40만원

전체 주민 1,428명

2025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하의도 발전용량 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32~8만원

전체 주민 1,625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1.14.

장산도 발전용량 2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24~6만원

전체 주민 1,479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11.19.

2026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마산도 발전용량 4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30년 연간 480~120만원

전체 주민 64명

2030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2024년 6월 현재

햇빛아동수당 40만→80만 원, 두 배 증가

햇빛아동 장학적금 가입률 43%

2024년 상반기 햇빛아동수당과 장학적금이 지난 5월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두 지급됐다.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햇빛아동수당이 올해는 1인당 연간 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지급액 대비 2배이다.

햇빛아동 장학적금이 지난 3월 출시됨에 따라, 햇빛연금을 포함한 수당 지급 대상자가 작년 대비 69명 증가해 총 2,888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장학적금 가입자는 1,246명으로, 가입률이 전체 아동수의 43퍼센트이다.

적금을 포함한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액은 11억 5,500만 원, 연간 23억 1,000만 원에 달한다.

• 주민 수익금 배당 참여지분권리

	전입신고일~	1년~	2년~
40세 이하	100%		
50세 이하	50%	100%	
51세 이상		50%	100%

• 신안 햇빛연금 문의 061-240-8339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 02

신안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 05

2024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 ㉮

우이도 우편배달부 윤숙희

신안군 섬문화다양성TF 공무원 박순홍

신안 청춘학교 교장 차지원

흑산면 상태도 출신 노동운동가 이용석

신안군의 새 군목 가거도 나한송
- 21

여름나들이

두 발이 호강하였더라! 증도 해변 맨발걷기
- 26

신안라이프

분재 특별전 등 여름 주요 전시들
- 28

섬 이야기 ㉮섬과 공동체

공동소유, 공동노동, 공동분배
- 32

생생현장

제2회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
- 38

1004섬 신안 ㉮팔금면

날마다 화사해지는 ‘노랑의 섬’
- 44

정책특집

손잡는 1004섬, 신안군 국내외 연대 현황
- 52

신안뉴스

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 추진 外
- 58

군수편지

세계와 교류하는 신안군



우이도에서 배를 타고 도초도 우체국으로 건너가 우편과 택배를 가져와 배달하는 우편배달부. 우이도 대초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2명의 우이도 우편배달부 중 한 명.

우편물과 택배 신고

매일 배를 탑니다

우이도 우편배달부 윤숙희



1 우편물을 분류하는 윤숙희 씨.
2 우이도로 가져갈 택배들.

우이도 2구마을 우편배달부 일을 17년 전 시작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다 남편 덕분(?)이다. 우이도 사람들은 모두 민박집을 운영한다. 나도 민박집 주인과 우편배달부, 1인 2역을 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우이도 토박이인데, 우이도는 1990년 초반에야 전기를 공급하는 내연발전소가 생겼다. 남편이 발전소장으로 일했다.

그 시절에는 업무 공문들이 컴퓨터가 아니라 우편으로 왔다. 우이도는 예나 지금이나 먼 섬이다. 지금도 목포에서는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예전엔 어땠겠나. 마을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문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한세월이었다. 중요한 공문을 제때 못 받고 놓치기라도 하면 일 처

리도 덩달아 늦어져 마을이 손해를 봤다. 그때도 나는 민박집을 운영했다. 당시 우이도에 관광객이 많아져 나는 나대로 바빴는데, 남편이 “혹시 당신이 우편물 가지러 도초면 우체국에 다녀와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해서 나가게 된 것이 벌써 17년이 됐다. 남편도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단다.(웃음)

우편물 가지러 한 달에 15회, 배 타고 도초면 도초우체국으로 가야 한다. 실제로는 횡수 상관없이 날씨가 좋으면 나간다. 섬 시간은 날씨에 달려 있으니깐. 우편배달을 다닌다고 하면 “요즘도 손 편지가 오가냐”고 묻는 이도 있지만, 우편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주로 많다. 수도료나 전기료 고지서, 기계 안전점검 기한 고지서, 여권 수령 같은 것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지만, 어르신들은 일일이 우편으로 확인하고 천 원 단위 요금도 한 장 한 장 지폐를 세어 내게 맡긴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나가는 날에 납부를 돕는다. 민박에 놀러 오는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금 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냐며 놀라더라.

우편도 우편이지만, 택배가 더 비중 있는 일이다. 우이도 사람들은 민박을 운영하고, 섬에서 나는 다시마나 미역 같은 생물을 택배로 조금씩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주민들이 소량으로 부치는 택배는 아쉽

게도 도서지역 택배비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택배 몇 개를 부치려 도초도까지 배를 타고 나가는 쉽지 않다. 내가 남편과 함께 경운기를 끌고 택배들을 한데 모아 배에 싣고, 나가서 부치고, 우이도로 오는 택배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우이도에서 도초도 나가는 배는 아침 7시쯤 있다. 목포에서 오는 우편차는 10시 30분쯤 우체국에 도착한다. 분류를 마치고 기다렸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우이도 가는 배를 탄다. 돈목마을 13가구, 성촌마을 7가구에 배달을 가는데, 중간에 있는 모래사구 앞 해수욕장에 물이 빠져야 마을 사이를 건너갈 수 있다. 다 돌리고 나면 저녁 7시쯤 된다.

들어오는 택배는 주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보내는 것이 많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섬에서 난 식재료를 바리바리 싸서 보냈는데, 요즘은 반대다. 섬으로 오는 택배는 무게도 유난히 무겁다. 섬에서 귀한 고기, 과일, 생필품 등을 짹짹 채우기 때문이다. 나 역시 자식들에게 그랬기에 바다 건너 부모에게 하나라도 더 보내고픈 마음을 잘 안다. 그 마음을 얼른 전달해야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못 뜨면 어쩔 수 없이 배달이 하루 이틀씩 늦어진다. 그럴 때는 애가 탄다.

내가 이 일을 맡기 전까지 우체부로 활동하셨던 분은 당시 80세가 넘는 나이였다. 나는 그 전에 후임이 생겼으면 좋겠

다.(웃음) 아직은 아픈 곳이 없고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 몸이 아플 때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걱정이다. 우이도는 우체부가 없으면 안 된다. 주민 생계를 돕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섬과 섬 사이의 소통이 우체부 두 발에 달려 있다. *1904*

정리·사진 노현서



우이도가 분주해지는 계절

돈목해변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모래언덕인 풍성사구가 있다. 바람에 실려 온 모래가 쌓여 만들어졌다. 여름이면 그 정취를 감상하며 고즈넉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이 찾아온다. 8월부터는 1년에 한 번 있는 미역 채취가 시작된다. 우이도 자연산 돌미역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특산물이다. 단단해서 오래 끓여도 퍼지거나 물러지지 않고, 끓이면 끓일수록 맛과 향이 진하게 배어 나온다.

전입 연속 도전 8년 만에 성공!

신안군 섬문화다양성TF 박순홍



신의면 하태도 출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일하다 '8년간' 노력 끝에 신안군으로 전입했다. 신안군 섬문화다양성TF에서 공모사업, 보조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신안군 섬문화다양성TF 사무실 앞에서.

작년 12월, 신안군으로 전입했다. 대략 8년 동안 여러 차례 전입을 시도했지만 소속 기관에서 허락해주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성공했다. 신안군에서는 언제든 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전 직장에서는 자리가 비는 지라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현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하 문화재청)가 이전 직장이다.

문화재청에서 한 일 중 섬문화유산 조사 작업이 가장 보람됐다. 신안 흑산면 만재도·다물도, 도초면 우이도, 비금면 수지도, 안좌면 사지도, 하의면 옥도, 임자면 재원도 등을 찾아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했다. 대학원에서 영상고고학을 전공해 영상제작이 주 업무였다. 신안의 섬문화유산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외 조사와 연구 작업이 없는 않았지만 행정작업이 더 많았다. 필요한 일이지만 내 일 같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신안군 전입을 희망한 점도 있다.

신의면 하태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목포로 전학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목포에서 생활했다. 부모님은 지금도 신의면 옛집에 살고 계신다. 유년 시절만 섬에서 보냈을 뿐인데도 언제나 바다가, 섬이 그리웠다. 목포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니 바다가 멀지 않았다. 그



문화재청 시절, 신안 우이도 해양문화 기록작업.

런데도 섬으로, 고향 신안으로 가고 싶었다. 마침내 신안 전입을 허락받았을 때 벽찬 느낌이 절로 들었다.

목포에서 압해읍으로 옮긴 것이니 생활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내면이 달라진 것 같다. 우선은 내 집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일에 대한 책임감은 문화재청 시절보다 크게 다가왔다.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이 드는데 스트레스는 아니다.

배정받은 부서는 '섬문화다양성TF'이다. 문화재청 업무를 고려하여 문화예술과나 세계유산팀 같은 곳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빗나갔다. 문화재청 일의 연속성으로 보면 섬문화다양성TF(이하 섬문화TF)가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배우는 입장인데 성과도 있었고, 재미도 크다.

네 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①한국향토 문화전자대전 편찬 작업이다. 신안의 다양한 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디지털화하는 일이다. 전문기관이 위탁 수행하고 신안군은 지원하는 방식이다. ②신안문화지소 운영 사업이다. 섬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전문기관과 신안군이 협업한다. ③신안플라스틱제로2050 추진 사업이다. 2050년까지 플라스틱의 부정적 영향을 ‘0’으로 만드는 장기계획이다. 신안군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작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④2024위케이션 활성화 사업이다. 원하는 곳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제공이 주 업무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신안군이 선정됐다. 섬문화TF가 공동여 얻은 결과이지만, 신안으로 와 첫 번째로 이룬 ‘개인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섬문화TF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보조사업 두 개 정도를 인수했다. 지난해에 떨어진 공모사업, 앞으로 도전할 공모사업 등을 간추려 재도전을 준비하는 일이다. ‘잘해야겠다’는 각오,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어쨌든 ‘앞으로 치고 나가자’는 용기 등이 얹혀 나름 긴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돕고 도움을 받고 조율하는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바다와 섬을 돌아다니면서 섬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싶다. 신안군에서 정년을 맞고, 일을 마치면 신의도로 돌아가 정착하고 싶다. [1004](#)

정리 이정우 사진 기대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전국 시·군·구의 다양한 지역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해 체계적으로 집대성한다.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 서비스하는 지역문화 편찬 사업이다. 현재 전국 123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 진도, 해남, 영암, 화순, 순천이 1차로 완료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열람을 할 수 있다. 신안군 내용은 현재 기초조사와 원고 집필을 하고 있고, 향후 멀티미디어 제작 등을 거쳐 내년 9월 편찬을 완료할 예정이다.

만 명의 부모님이 계시는 두 번째 고향

신안 청춘학교 교장 차지원



신안에서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한누리아카데미 대표. 그 외에도 교수, 원장, 교장 등 직함이 여럿인데 ‘신안 청춘학교’ 교장으로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한다.

천사대교로 진입하는 압해도 바닷가에서.



‘신안 청춘학교’를 함께 꾸리는 한누리아카데미 제자들과 함께.

‘신안 청춘학교’가 열리는 날은 새벽 서너 시면 눈을 뜬다. 첫 배는 줄이 길게 늘어 서기 마련이라, 항구에 일찍 도착해야 마음 편하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신안에서 연륙되지 않은 곳은 6개 지역이다. 신의·하의·장산·비금·도초·흑산. 최소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먼 뱃길이다.

섬에서는 또 다른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19년부터 신안에서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육지를 오가기 불편한 섬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민관 협치사업이다. 흑산을 제외하고 신안에서 연륙되지 않은 5개 지역은 모두 (주)한누리아카데미 담당이다.

대학에서 교수로 오래 일했다. 섬 어르신들을 만나 서로 간에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었다. 대학 제자들과 의기투합해 (주)한누리아카데미를 만들

고, 희망차게 신안으로 향했다. 최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온,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제자들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삶에는 늘 복병이 숨어있다. 작은 고난 그 자체였다. 사업 시작 1년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닫혔다. 섬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어찌어찌 들어가도 수업 진행이 어려워 먼바다만 바라볼 때가 많았다. 코로나는 노인들에게 훨씬 치명적이었다. 섬은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안전지대였다. 그러다 보니 섬 어르신들은 외지인들과 만나는데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마음 가득했던 열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러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2년을 버텼다. 2022년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섬에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었다. 사회 전체가 기지개를 펴듯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섬 어르신들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 듯싶었다. 아주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도 어르신들은 적극적이었다. 신안의 여러 섬들을 함께 찾아가는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날이면 참여가 더욱 활발했다.

최신 형태의 문화활동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섬 어르신들에게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는 신선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부담(월 14,000원)이 있었지만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활기 넘치는 어르신들을 보며 문득 효도라는 게 별것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어깨를 부비고, 마음을 나누는 게 효도였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운 학교’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신안 청춘학교’로 바꿔 불렀다. 함께 웃고, 소리치고, 수업을 꾸려가다 보면 어르신들은 청춘의 어느 한 시절로 되돌아갔다.

아쉬움도 없지 않다. 하의면 중남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는 퇴행성관절염을 오래 앓아 두 발로 걷지 못하신다. 손까지 동원해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도 청춘학교에 지각, 결석 한 번이 없으시다.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 탓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제한적이

다. 더 많은 섬 어르신들의 참여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통 크게 늘려 주면 좋겠다. 복지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고향은 강진이다. 현재 목포에 살지만 진짜 신안주민이 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압해도에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 신안은 곳곳에 만 명의 부모가 계시는 ‘두 번째 고향’이다. [004](#)

정리 정상철 사진 오종찬



누구라도 ‘신안 청춘학교’

신안 청춘학교는 4년 과정이다.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가 3년,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가 1년이다. 4년 과정을 졸업하고도 청춘학교는 계속된다. 배움 욕구가 강한 어르신들을 위해 신안군이 별도 예산을 세워 2023년부터 ‘신안군 보건소 연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 청춘학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문의 061-271-8323

‘영원의 꽃이 된 젊음아’*

흑산면 상태도 출신 노동운동가 이용석(1972~2003)



흑산면 상태도에서 나고 자라 전남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를 이끌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분신의 길을 택했다.

이용석 열사와 그의 고향 흑산면 상태도. 생전에 근로복지공단 노조활동을 하던 모습.



이용석(1972~2003)은 2003년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분신하여, 비정규직의 사회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린 노동운동가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신안 섬사람들이 외쳐왔던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에서 2남 5녀 중 넷째, 차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상태도에서 다니다가, 목포로 유학을 가서 산정초-문태중-홍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장래 희망은 문학인이었다. 대학 진학 당시는 집안 형편을 고려해서 취업이 잘 된다는 금속공학과를 선택했다. 전남대 금속공학과 91학번인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 199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국제금융을 요청한, 일명 ‘IMF(국제통화기금)’ 상황이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취업이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용석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2000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2002년 1월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교사 활동도 병행하였다. 단순히 수업 봉사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2000년 하반기부터는 공부방 대표를 맡아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장

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이용석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당당한 자기 주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3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용석은 광주본부장에 당선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2003년 10월, 불꽃이 되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21세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실상은 장밋빛 세상을 그릴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었다.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실업자가 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517일간 파업을 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시대적 사건이었으며,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졌다. 이용석이 근무하던 근로복지공단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용석은 2003년 10월 26일 개최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며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 대회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한 대회였다. 전국 곳곳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리기로 하고 직접 준비한 집회였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간부였던 이용석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결국 자기 육신을 희생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일부 노동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임을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분신은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이자 자국이 되었다. 이용석이 근무하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 집결하여, “이용석을 살려내라”고 외치며 장기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모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곳에 농성장을 차리고, 49일 동안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있는 이용석 열사의 묘. 오른쪽에 백기완의 추모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용석의 분신을 계기로 전개된 파업 투쟁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민주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지가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시험을 통해 정규직이 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에는 공무원 확대와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였다.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

신안군, 열사 고향에 흉상 건립

이용석은 2003년 10월 31일 오후 3시, 32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하였다. 불꽃 같은 그의 산화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심하고 기획된 것이었다. 파업의 공



열사의 고향인 흑산면 상태도에서 열린 흉상 제막식(2013년 6월 13일)과, 마을 입구에 있는 열사의 흉상.

포 속에 주저하고 있던 동지들에게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지려는 마음이었다. 2003년 10월 23일 작성한 유서에 “10월 9일 중앙집행위에서 파업을 결의하였을 때 이미 오늘을 예고하였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깨어나지 않은 조합원에게 몸으로써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몫을 제가 다하고자 합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장례는 사망한 지 36일이 지난 2003년 12월 8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진행되었다. 분신 이후 그의 정신 계승을 위해 41일 동안 파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장례식이 늦어졌다. 영결식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렸으며, 고인은 광주광역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되었다. 열사의 묘비에는 백기완(1932~2021)의 추모시가 새겨져 있다.

이용석이 노조 간부로 활동한 시기는 짧았지만,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많은 동료들과 노동운동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2004년에 ‘아름다운 청년 이용석 노동자상’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 ‘이용석노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가 결성되었다. 신안군은 지난 2013년 6월 이용석의 고향인 흑산면 상태도에 흉상을 건립하였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노동운동가 이용석의 이름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2024*

글·사진 최성환(목포대 사학과·도서관학연구원 교수)

*백기완이 쓴 이용석 열사 추모시의 제목.

참고문헌

이인희, 『날개 달린 물고기』, 삶이보이는창, 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archives.kdemo.or.kr)
최성환, 『천사섬 신안, 섬사람 이야기』, CREFUN, 2014.

1004섬 신안의 새 군목, 인사드려요

가거도 나한송



온난한 지역에서 암수가 따로 자라는 상록성교목.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생지인 가거도에 여러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서남단인 가거도 절벽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한송.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올봄 신안군 새 군목(郡木)으로 취임한 나한송입니다. 군목 지정에 힘써주신 신안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 군목이었던 소나무 님,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오늘까지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서남단인 흑산면 가거도 절벽에 살고 있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에게 새날이 열린 때는 9년 전입니다. 신안군 관계자들이 가거도에 조사를 왔다가 “가거도가 우리나라 유일의 나한송 자생지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섬 전체를 살살이 조사해 올해 초 ‘신안군 나한송 분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족보를 한번 정리해야 하는데...’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터에, 신안군이 대신 조사를 해줬으니깐요. 이어서 신안군은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국가보호종’으로 지정되게끔 나서고, 마침내는 신안군 군목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기회에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한송은 세상을 맑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편백나무보다 저희가 피톤치드를 더 많이 뿜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송을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연 공기청정기’ 나한송! 이참에 귀댁에 나한송 한 그루, 어떻습니까?



1 나한송의 잎.

2 붉게 익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인 열매.

저희 나한송이 어떻게 가거도에 정착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태풍이 오거나 풍랑이 일 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어선들도 가거도에 피난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상업이 번성한 적도 있고요. 아마 그런 시절 씨앗이 들어와 퍼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중국 남부나 일본, 대만, 미얀마처럼 보통 따뜻한 아열대와 난대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생지는 지금까지 가거도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바람은 세지만 기온은 육지보다 차갑지 않거든요.


나한(羅漢)이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왔습니다. 나한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을 지닌 성자’를 뜻합니다. 나무도 깨달음을 얻느냐고요? 저희 열매는 회색이었다가 가을에 붉게 익어가는데, 이게 회색과 붉은색이 조화된 불교 수행자의 옷을 닮았거든요. 좀 억지인가요? 저는 합당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기를 맑게 해 사람들의 정신 수양에 도움을 주니까요.

가거도 사람들은 일찌감치 나한송의 신비로움을 높이 샀습니다. 옛날 가거도에는 마을이 세 개 있었는데, 마을마다 다른 토속신을 믿었습니다. 그중 한 마을이 저희를 수호신으로 삼고 할머니 나무에 제를 올렸답니다.

저희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구별되는데, 모두 가거도에 정착했습니다. 덕분에 후손을 잘 퍼뜨렸고, 지금은 이백칠십 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무로 정정히 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 상태로 발견된 최고령 나한송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저는 근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하필 비바람 몰아치는 외딴 해안절벽에서 자라는가, 나는 나무계의 흠수저인가’... 존재의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다 신안군 군목으로 지정됐고, 가족회의에서는 저에게 취임사 작성을 맡겼습니다. 취임사를 준비하며

알게 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징목이 거기서 거기여서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점ですよ. 전국 34개 시·군이 소나무를 상징목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반면 나한송은 신안의 고유한 상징목으로 딱인데다 신안 섬사람들의 시련과 강인함을 상징한다고, 모두 칭찬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도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칭찬은 흑산바다 고래도 춤추게 하고, 가거도 나한송도 노래 부르게 하지요. 앞으로 1004섬 신안의 상징목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해영

지도읍 맨발걷기 길

신안군은 지도읍에 전국 최장의 맨발걷기 길(어성길)을 조성하고 있다. 자동리에서 점암선착장까지 총 14km 구간으로, 2023년 7월 자동리 초입 3.4km를 개통했고 2026년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황토를 두텁게 쌓아 올린 길 양쪽에 심은 나무가 바로 나한송이다.



두 발이 호강하였더라

증도 해변 맨발걷기

무겁게 짐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가벼운 손가방 하나면 충분하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찰랑이는 파도를 따라 사뿐히 걷는다. 더위가 점점 가시고 머리는 한결 개운해진다.

코스 증도 팽뚱어해변 주차장 - 우전해변 입구 세족장
거리 편도 약 3km. 왕복 1시간30분~2시간



오전 썰물 때의 팽뚱어해변.



모래 입자가 매우 곱고 젖은 길과 마른 길, 울퉁불퉁한 길 등 질감이 다양해 맨발걷기가 즐거운 짱뚱어 해변.

전국 곳곳에 맨발걷기 길들이 생기고 있다. 평소 걷기를 좋아하는 터라 유난히 반가운 유행이다. 그간 뒷산만 걷던 차에, 시원한 바다가 눈에 아른거려 증도 짱뚱어 해변을 찾았다. 모래가 유난히 고왔던 기억이 있어 맨발로 걸어도 좋을 것 같았다.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이날 간조는 오전 11시 50분. 간조까지 서서히 물이 빠지며 해변에 걷기 좋은 모래갯벌이 드러나고 있었다. 따로 물때를 맞추지 않았는데 운이 좋다. 저 멀리 우전해변 방향

으로 엘도라도 리조트가 보인다. 이 걷기의 목적지다.

신발을 벗고 발을 내딛자 곱디고운 모래가 발바닥을 간지럽힌다. 뜨끈하게 달구어진 모래사장을 힘차게 걷기 시작한다. 쭉쭉 들어가는 발이 지압과 모래찜질을 동시에 받는 기분이다. 이번에는 바닷물에 젖어 단단해진 모래갯벌로 건너간다. 걷기에는 마른 모래보다 젖은 모래가 더 수월하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썰물시간에 맞춰

서 와요. 짱뚱어해변에서 우전해변까지 걷고 정자에서 좀 쉬다가 돌아오면 한 시간 반가량 걸려요. 바닷물과 갯골이 있어서 발도 시원하고, 파도에 다져진 울퉁불퉁한 바닥이 특히 좋아요. 천연 지압판이네요.”

증도면 증동리에 사는 이 부부는 맨발걷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무릎을 다친 아내가 편하게 걸을 곳을 찾다가 해변 걷기를 시작했고, 많이 회복했다고. 몸에 난 상처도 금방 아무는 것 같아 앞으로도






- 1-3 짱뚱어해변과 우전해변 사이 맨발로 걷고 쉬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4-5 세죽장이 있고 청소 트랙터가 있어서 맨발걷기가 편하고 안전하다.
6-7 태평양전 소금아이스크림과 송도위판장 병어회로 걷기 마무리.



꾸준히 걸을 계획이란다.

산에서 맨발로 걸을 때는 날카로운 돌이나 지형이 있나 살피려고 고개를 숙인 채 걷게 된다. 그러다 보면 목에 긴장이 좀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곳은 경사가 없고 모래질이 균일해 잠시 해찰을 부려도 발이 안전하다. 파도소리를 따라 걷는 동안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자유로워진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편안하게 쉬고 있음을 느낀다.

부드러운 조개껍데기, 동글동글 게가 파놓은 게 구멍 등 중간중간 등장하는 바다생명의 흔적들이 즐겁다. 젖은 모래, 울퉁불퉁 다져진 모래, 마른 모래, 갯골(갯벌 속의 물길) 등 질감이 다양한 해변길이다. 흐렸다가 맑았다가, 수시로 바뀌는 섬 날씨도 지루하지 않다. 바닷바람이 불어 오므로, 햇빛만 잘 가린다면 한여름에도 걷기 무난해 보인다.

혈액순환 개선, 두통 해소, 피로 회복, 당뇨 예방, 불면증 해소 등 맨발걷기 효능이 많다고 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는 역시 '소화'다. 맨발걷기를 하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 걷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증도 태평양전에서 소금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을 한 후 송도위판장에 들러 제철 맛은 병어를 사서 본격 회로 떠먹는다. 더할 나위 없는 여름철 몸보신, 마음보신 코스다. 

글·사진 노현서



짱뚱어-우전 해변 맨발걷기 정보

향기의 길 해변 옆 해송숲에 신안군이 조성한 '향기의 길'(한반도 해송숲 내)이 나란히 간다. 갈 때는 해변 맨발걷기, 올 때는 향기의 길 걷기의 조합도 좋다. 향기의 길은 일반 숲길이므로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좋다.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준비물 가벼운 배낭, 신발 담을 비닐봉투, 물티슈, 스포츠타월, 밴드·알콜솜, 물, 모자 또는 양산. 맨발걷기를 자주 한다면 파상풍 예방접종을 권한다.

그외 맨발걷기에 좋은 신안군 해변들 증도면(설레미해변), 임자면(대광, 어머니, 은동), 자은면(백길, 분계, 둔장, 외기, 내치, 양산, 면전, 신성), 비금면(원평, 하트, 명사십리, 첫구지, 이미, 내포), 도초면(돈목, 띠밭넘어, 성촌), 흑산면(배낭기미), 하의면(신도), 신의면(황성굴리), 암태면(추포)



연중 맛보는 특별함 ‘분재 특별전’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7월 주목나무 특별전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이 자체 보유한 명품 분재들로 연중 특별전을 꾸리고 있다. 첫 전시는 ‘명자나무 분재 특별전’(3.22.~4.14.)이었다. 뒤이어 등나무, 철쭉, 소사나무 특별전이 차례로 열렸다. 7월은 주목나무 특별전이 열린다. 이어 소나무(8월), 열매분재(9월), 가을단풍(10월), 동백분재(12월) 특별전이 예정돼있다. 분재의 개화와 생육상태에 따라 전시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 061-240-5445



‘1004섬 신안을 빛낸 인물들’ 어록

장산면 장산화이트뮤지엄, 6.12.~9.30.

신안의 각 섬이 배출한 걸출한 인물들의 이름과 어록을 서예로 표현한 전시를 열고 있다. 참여 작가는 장산 출신 송홍범 작가를 포함해 31명의 서예가이다. 2023년 ‘신안의 컬러를 쓰다’ 전시에 이은 1004섬 노을묵향회의 두 번째 전시다. 김환기(안좌), 김대중(하의), 이세돌(비금), 문준경(증도), 정약전(흑산), 조희룡(임자) 등 신안을 빛낸 인물들을 서예의 미학으로 표현한 64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매주 토, 일요일 휴관) ☎ 061-240-8062

신안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만나다

자은면 신안자생식물뮤지엄, 4.27.~7.26.

‘신안 자생 멸종위기종 동·식물’ 기획전시가 1004뮤지엄파크 안에 있는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다. 신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소개하고, 신안군이 국립생태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복원 노력을 알리기 위한 전시다.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참달팽이 등 흑산면(가거도, 홍도, 하태도 일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국립생태원이 기증한 식물, 관련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 061-240-8519



그림 도구를 빌려 드립니다

압해읍 저녁노을미술관 ‘드로잉 파크’

신안 군립 저녁노을미술관이 미술관과 1004섬 분재정원 방문객에게 화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참여자는 종이, 사인펜, 크레용, 고체 물감 등 다양한 그림 도구 중 원하는 도구를 선택해 화구 가방에 담아갈 수 있다. 저녁노을미술관 2층 북카페 테라스에서 이젤 앞에 앉아 바다 풍경을 보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최대 2시간까지 대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접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 061-240-5441



공동소유, 공동노동, 공동분배

⑧ 섬과 공동체

소재별로 섬 문화를 알아보는 연재입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발간한 책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말> 중에서 열 가지를 요약 정리해 10회 연재하고, 매회 신안 사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연재 순서는 섬과 바람-물-산-농업-어업-무인도-음식-공동체-유배-바닷길입니다.



자은도 은암대교 아래 남진선착장. 선착장 운영과 어선의 어업활동 등은 모두 마을 어촌계의 규율 속에서 이루어진다. ©신병문.

섬마을은 제각각 다른 성씨들이 모여 산다. 전 근대 내륙지역 유이민들이 섬으로 모여들었고, 문전옥답 부근에 마을이 들어섰다. 그래서 문중(門中)보다는 동중(洞中)이 으뜸이다. 그런데 근현대로 접어들면서 섬에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섬과 섬이 하나로 연결되어 행정단위를 형성하고, 작은 섬은 간척 과정에서 흔적조차 없어졌다.

대규모 토지와 염전, 그리고 학교 부지가 있는 간척지가 생기면서 섬사람들의 생업 기반은 크게 바뀌었다. 바다를 생업 터전으로 삼아왔던 사람들은 농사에 전념하면서 생활하게 됐고, 섬마을의 풍경은 어느 농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달라졌다. 섬사람들은 토지를 매개로, 임야를 단위로, 제방과 농경수 관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했다. 공동체는 동계(洞契), 목계(木契), 언계(堰契), 어촌계(漁村契) 등으로 불렸다.

토지를 매개로 조직된 ‘동계’ 진도 송산리 사례

우리나라 섬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섬을 지칭할 때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 진도를 손꼽았다. 섬이 크다는 것은 그 섬에 농사지를 토지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었다. 전남 진도 사람들의 생업기반은 오래전부터 반농반어(半農半漁)였다. 1909년 작성된 <민적표>에 의하면, 완도군은 788호, 지도군(현 신안군)은 403호가 바닷일에 종사할 당시 진도는 35호만 바닷일에 종사했다.

송산리는 진도에서 토지가 가장 넓게 분포해 일찍이 토착 성씨들이 터를 잡고 마을을 형성했다. 마을회관에 동계·학계·문도계 등 마을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761년에 작성된 <동계안>이다. 서문을 보면, “송산리 사람들은 질병·출산·사망·제사 등 주민들 간에 상부상조한다.”라고 적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곡식을 모아 ‘동계전’이라 부르는 공적자금을 마련했다. 계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는 ①마을 곡물을 수봉하



압해읍 가란도 주민들의 쫄쫄이미역 말리기 ©이정옥.



흑산면 대둔도 섬마을 주민들의 어업 ‘출근길’ ©안은희.

어촌계 현황

전남 시·군별 어촌계 현황(2020.1. 기준,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자료)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어촌계수	9	131	1	1	15	152	29	42	30
시군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총계
어촌계수	72	2	30	5	16	188	60	72	855


는 날에 동참 ②동회 모임 참석 ③동산의 산림 보호 ④혼인·초상·성조 등 부역하는 날에 반드시 참석 등이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관아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토지를 매개로 한 공동체는 섬 생활과 질서의 단단한 기반이 됐다. 송산리 사람들은 진도를 대표하는 동성마을로 성장했고, 마을 서당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진도군 내 면장으로 대거 취임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공동의 수익과 복지 추구하는 현대의 공동체 ‘어촌계’

어촌계는 오늘날 섬마을의 공식적인 사회조직이다. 섬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어촌이며, 이들의 생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공유자원인 마을어장이다. 법적 근거를 갖는 어촌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어촌사회에도 당연히 자생적이고 원시적인 협동조직체인 양식계, 하조계, 포패계 등이 있었다.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어촌계는 농산촌과는 다른, 특이한 규범을 바

탕으로 한다. 어촌은 공유재인 바다를 끼고 형성되어 있다. 어촌계는 바다의 생산력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것이 아닌 국가 공유재를 마을의 공유재로 소유한다. 그리고 생산에 활용해 소득을 창출한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바다를 일정 구역으로 나누어 개인 텃밭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공동생산의 경우 젊은 어촌계원들이 생산하면 생산에 드는 순수비용은 어촌계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남은 것은 나이 많은 원로 어촌계원과 공동으로 분배하니 한편으로는 노후 소득보장 형태의 복지제도 역할도 하는 셈이다.

어촌계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마을자치 조직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촌계의 운영 방식과 활성화 정도는 마을어장의 경제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심이 얕고 갯벌이 발달해 맨손어업, 해조류와 패류 양식어업이 주로 발달한 지역에서는 마을어장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 즉 어촌계가 마을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하다. 반대로 어선어업지대에서는 마을어장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어촌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다. 

+

신안 안좌도 읍동 '언계' 이야기

<조선왕조실록> 등 옛 기록물에 ‘안좌도’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기좌도’와 ‘안창도’라는 섬이 확인된다. 기좌도와 안창도가 간척공사로 하나의 섬이 되면서 안좌도라는 지명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읍동 언계’는 간척과 제방 관리를 위해 조직한 공동체다. 섬에서 토지는 자급자족을 위해 필수 요건이었다. 섬사람들은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차단하고, 그 안쪽에 간척지를 조성했다. 이를 언답(堰答)이라 부른다. 언답은 태풍과 해일에 취약했기에 제방 붕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언계(堰契)를 결성했다.

언계에는 언답의 소유자이자 경작자인 ‘작인’이 있다. 작인의 의무는 토지 경작과 제언(둑) 보수다. 예를 들어 둑에 작은 물구멍이 발견될 경우 제방을 관리하는 ‘보주’는 즉시 작인에게 알려 제방을 보수하도록 했다. 만약 보수하지 않았다가 바닷물이 유입돼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전적으로 그 작인이 책임을 져야

했다. 반대로 보주가 미처 누수를 발견하지 못해 손해가 났다면 보주가 피해를 보상했다.

작인들은 보주에게 인건비 대신 언답의 경작권 일부를 제공했다. 이것을 ‘보주답’이라고 한다. 보주는 보주답을 경작하고 연말 토지세로 쌀 두 섬을 언계에 납부했다. 즉 토지 주인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보주는 제방 안전을 살피는 대가로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할 수 있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경제생활을 영위한 것이다.



기좌도와 안창도가 이어져 큰 섬이 된 안좌도. (회색 부분은 간척 구역, 흰색 부분은 갯벌 구역)

‘농게도 칠게도 내 밥이지만 망태 맨 저 아저씨는~’

제2회 신안군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



지난 5월 29일 압해읍에서 열린 낙지 장인 선발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낙지를 잡아 보이고 있다.



1

5월 28일 개최 예정이었는데 29일로 연기됐다. 비 예보 때문이다. 갯벌에 민물이 조금만 스며들어도 낙지의 동선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만큼 민감한 연체어류를 맨손으로 잡는다. ‘제2회 신안군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 이야기다.

당일 오전 10시 압해읍 무지개마을 선착장 대회 본부에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진다. “...나는 갯벌의 왕 나약~ 나약지~ 엄지 큰 농게도 검은색 칠게도 모두 모두 내 밥이지만 무서워 무서워 낚은 작업복에 혈령한 망태 맨 저 늙은 아저씨가...” 가사와 리듬, 중독성이 강하다. 노래 속 낙지가 무서워하는 ‘늙은 아저씨’가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되었다. 장인 중의 장인을 뽑는 날이 오늘의 대회이다.

- 1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장비 설명을 해주는 장인.
- 2 긴 장화에 삽을 들고 낙지바구니를 맨 장인. 장인의 것(오른쪽 삽)은 자루와 삽날을 잇는 부분에 빈틈이 없다. 낚은 더 짧고 좁으며 손잡이가 간결하다.



2



낙지잡이 복장과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젊은이 다섯 명이 왓자지껄 수다를 떨고 있다. 생중계를 위해 모여든 인터넷 방송인들이다. 이들은 곧바로 낙지잡이 장인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았다.

“장에서 샀는가본디, 요 삽으로는 택도 없어. 금방 휘어부러. 짠 갯벌에 넣다 뺐다를 수백 번 하든, 요 (삽)날은 전디들 못해. 내 꺼슨 특수 제작한 강판이여. 휘도 않고 갯물에도 아조 잘 전디제.” 비교해 보니 장인의 것이 어딘가 모르게 ‘진짜’ 같다.

10시부터 몸을 드러내기 시작한 갯벌이 30여분을 넘기면서 광활하게 넓어졌다. 다섯 명의 장인들이 갯벌로 성큼성큼 들어간다. 긴 장화

를 신고, 삽(가래)을 들고, 낙지바구니(조락)를 댔다. 모두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이들이다.

고요히 갯벌을 응시한다. 낙지 숨구멍으로 추정되는 곳에 재빨리 삽을 꽂아 갯벌을 파낸다. 50cm 안팎 깊이까지 내려간다. 손을 집어넣어 꿈틀거리는 낙지를 잡아낸다. 갯벌을 팔 때마다 낙지가 나오는 건 아니다. ‘승패’ 확률은 장인마다 다르다. 사진기자 한 명이 갯벌에 발이 박혀 움썽달싹을 못한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온다. 장인들은 골목을 산책하듯 갯벌을 종횡무진한다.

여타 장인들과는 다른 자세로 몸을 움직인다.

삽이 없다. 맨손으로 갯벌을 파 낙지를 끄집어낸다. 도초면에서 온 김행규 씨다. 이날 총 26마리를 잡아 ‘공식 장인’으로 선발됐다. 11세 때부터 아버지 따라 낙지를 잡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경력으로는 25년째다.

장인마다 어획량의 차이가 컸다. 그만큼 난이도 높은 작업이라는 의미일 터다. 다섯 명이 1시간 동안 총 61마리를 잡았다. 소낙, 중낙, 대낙으로 크기 비율은 고르다. 곧바로 ‘탕탕이’ 시식이 이어진다. 한 접시 받아 초장에 찍어 오물거렸다. 진실로, 여태껏 먹어본 어떤 산낙지보다 맛의 차원이 달랐다.

정오 무렵 대회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갯벌 속에 길고 긴 팔뚝이 들어온다, 넓고 넓은 그

- 3 신안 전통어업 전수와 홍보를 위한 이 대회에 5명의 장인이 출전했다.
- 4 대회가 열린 압해읍 무지개마을 갯벌. 썰물 때에 맞춰 열렸다.
- 5 갯벌 깊숙이 숨은 낙지와 노련한 장인들의 대결이다.
- 6 갯벌에서 자유자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장인들 말고.



- 7 이날 공식 장인이 된 김행규(도초면, 경력 25년) 씨. 그의 팔뚝은 세로로 그어진 상처 투성이다. 주로 굴, 바지락 같은 패류에 배인 것이라 한다.
- 8 장인들이 잡아 올린 낙지들이 소낙, 중낙, 대낙으로 분류된다.
- 9 시상식 마치고 탕탕이 시식. 살면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산낙지.

할아버지 팔뚝이 들어온다...” 낙지 노래가 환청처럼 행사장 주변을 휘감았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수산업 장인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7명과 흑산 홍어썰기 장인 2명이 선발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회로 ‘낙지 장인’ 1명이 추가됐다. 김행규 장인은 신안군으로부터 소정의 기술장려금을 받고 기술 전수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펼친다. 1004

글 이정우 사진 기대근

*노래 ‘낙지’ 듣기
(유튜브 채널 ‘AI작곡가_김윤 TV’)



엄마, 아빠!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하게 일하기로 약속해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1004 신안군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1004섬 신안군 기념우표’ 발행

발행일
2024.5.1.

구입처
신안군, 목포시 우체국
(추후 전국 우체국 판매)

내 용
신안의 관광명소,
섬꽃 축제, 문화유산 등



날마다 화사해지는 노랑의 섬, 팔금면

언덕에 황금사철나무를 심어 만든 옐로우 정원, 인근 은행나무길 등 ‘옐로우(노랑)의 섬’으로 특화한 팔금면.

섬으로만 이뤄진 지자체 신안군! 이번 호부터 신안의 14개 읍·면을 하나씩 차례로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신안 중부의 팔금면입니다.

여덟 개의 섬이 이어진 섬, 여덟 마리의 새가 내려앉은 모습이라고 팔금(八禽)도라 한다. 여덟 개가 모였다고는 해도 팔금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신안 14개 읍·면 중 면적이 가장 작다. 이 아담한 팔금도가 요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섬정원’ 사업에서 팔금면의 주제는 ‘노랑의 섬’이다. 봄날 유채꽃, 가을 은행나무, 사계절 황금사철나무, 그리고 온갖 노란 꽃 초본이 화사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섬 북쪽 철쭉정원은 팔금도의 샛노란 봄날에 꽃분홍색 포인트를 준다.

올봄 완공된 ‘옐로우 정원’은 황금사철나무 언덕이다. 팔금도 한가운대를 관통하는 도로를 지나노라면 길가에 온통 샛노란 언덕이 등장해 차를 멈추게 한다. 노란색의 정체는 꽃이 아닌 이파리인데, 꽃보다 더 화사하게 느껴진다. 옐로우 정원은 두 곳에 조성돼 있고, 꼭대기에는 각각 무인카페가 있다. 은행나무 산책길은 두 정원을 연결하면서 면소재지까지 이어진다. 이파리가 노랗게 물들 가을날의 절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덟 개의 섬이 모인 땅 친환경 쌀의 본산

‘팔금면’은 본도인 팔금도와 주변 작은 섬들을 아우른다. 신안 여느 섬처럼 농가가 대부분인 팔금면은 신안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쌀 생산지다. 팔금 쌀은 거의 전부가 유기농이다. 덕분에 팔금면의 논은 생태계가 특히 건강하다.

지난 5월 팔금면 원산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매화마름 군락지가 발견됐다. 꽃이 매화를 닮은 매화마름은 건강한 습지에서 사는 식물이다. 과거에는 흔했지만 산업화를 거치며 거의 사라져 지금은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돼있다. 그런 매화마름이 팔금면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다.

서남해 섬에서 평평한 땅은 대부분 간척의 산물이다. 섬과 섬 사이 갯벌에 방조제를 쌓고 바닷물을 막아 만들어낸 땅이다. 섬 땅은 섬사람들의 피와 땀을 맞바꾸어 태어난 셈이다. 간척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돼 일제강점기, 전쟁 이후 천일염 전 건설기 때까지 계속됐다. 팔금면의 여러 농토도 간척으로 완성됐다. 간척 이전 8개의 섬은 본도, 백계도, 원산도, 띠섬, 거문도, 매도, 고산도, 거사도를 말한다. 1950년대 장춘리와 진고리 사이 넓은 갯벌이 육지가 됐고, 거문도도 본도에 합쳐졌다. 거사도와 매도는 각각 노두로 본도와 연결됐다.



팔금면 2024.3.31. 현재

현황 유인도 2개(팔금도, 매도), 무인도 15개
교통 목포역-(천사대교)-팔금면. 자동차로 1시간(44km)
면적 18.3km² (압해읍의 27%, 여의도의 4배)
인구 917명 (여 459, 남 458)
세대 574호 (농가 320, 어가 28, 기타 226)
토지 임야 6.85km², 논 2.77, 밭 1.7, 기타 6.98

농업 벼농사 277ha(유기농 96%), 밭작물 170ha(마늘, 양파, 대파, 유채, 딸기 등), 꾸지뽕 13.6ha(22농가)
어업 김 양식 338.5ha(12어가), 새우 양식 64.4ha(12어가), 천일염 38.6ha(11어가)
축제 섬 유채꽃 축제(4월중), 섬 왕새우 축제(9월중)
섬정원 주제 노랑의 섬

천사대교

압해도

암치도

소삼부도

농섬

일금도

매도

대삼부도

노두

거문도

죽도

할미도

하남덕도

상남덕도

용도

넓은모래섬

화도

장도

삼층석탑

북하우스

(예정)

대심리

금당산

(130.8m)

장촌리

진고리

백계도

우이산

(90m)

(옛)백계항

안좌도

암태도

남강항

철쭉정원

팔금도

장목주차장

은행나무길

옐로우정원

원산도

채일봉

(159m)

전망대

매화마름 군락지

서근리 등대

1950~60년대 간척지역



암치도



불무기도 ©신안군

불무기도

간척지는 염전이나 농지로 쓰였다. 주민 고령화로 농업과 염업이 모두 축소된 최근에는 태양광발전단지로도 변신하고 있다. 팔금도 북쪽에 세 곳의 발전단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특산물 실험도 계속돼왔다. 꾸지뽕은 귀농민을 중심으로 재배가 시작됐고, 20여 농가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도 만들어졌다. 신안군은 '1004섬 신안딸기학교'를 운영하며 청년 귀농인의 딸기농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쪽 산에는 전망대와 등대 새들의 낙원인 무인도들

팔금도 서쪽 원산리에는 멋진 산악지대가 있다. 바로 선학산 채일봉(해발 159m)이다. 채일봉 전망대에서 서면 다도해 경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는 배를 바라보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진다. 산 아래 서근리 무인등대로 내려가면 고즈넉한 정취가 더욱 고조된다.

5년 전 개통한 천사대교는 팔금면 밤바다 경관을 완성해주는 형형색색 볼거리다. 바다에 어둠이 내리면 천사대교 불빛이 수평선에 수를 놓는다. 다리 길이만도 7km가 넘기에 바다에 병풍을 두른 듯하다.

팔금면의 유인도는 2개다. 본도인 팔금도, 그리고 팔금도와 노두로 연결된 매도가 있다. 매도와 마찬가지로 노두로 연결



1



2



3



4

된 거사도 역시 유인도였으나, 지금은 주민이 없어 농경지로만 이용되고 있다.

팔금면 바다에는 15개의 무인도가 흩어져있다. 보석처럼 수놓인 이 섬들은 대부분 새들의 낙원이다. 불무기도에는 갯이갈매기 1만여 마리가 살고 있다. 섬 한복판 무인등대를 둘러싸고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이들의 날갯짓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암치도는 백로와 왜가리의 천국이다. 암태도 오도선착장에서 출항하는新安관광요트는 천사대교를 지나 암치도를 한 바퀴 돌아서 운행한다. 백로와 왜가리가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려있는 암치도 숲을 가까이서 만나보는 코스다.

팔금면은 한때 안좌면에 속했다가 1980년 팔금면으로 승격되며 독립했다. 1989년 신안1교, 2005년 중앙대교 개통으로 안좌도, 암태도-자은도와 차례로 이어졌다. 2019년에는 천사대교가 생겨 육지와 완전히 이어졌다. 교통의 천지개벽을 맞아 새로운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신안군은 굴지의 출판사인 한길사와 협약을 맺고 책과 예술, 관광이 결합된 (가칭)북하우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 거점이 팔금면이다. 천사대교 개통 전까지 팔금면 뱃길을 이었던 선착장 두 곳(고산, 백계)도 새로운 쓰임새를 모색하고 있다. 노랑의 섬 팔금면이 나날이 화사해지고 있다.

글 이혜영 사진 오종찬 도움 전경미, 조양호

고맙고도 얄미운, 노두

팔금면의 두 번째 유인도 '매도'

매도는 팔금도와 노두로 연결돼 있다. 노두는 한 달 중 수위가 낮은 '조금' 시기 1주일가량은 언제든지 건널 수 있지만 평소엔 하루 두 번, 만조 때 물에 잠긴다. 그리고 물때는 매일 바뀐다. 현재 7가구 14명이 살면서 주로 김 양식과 논농사를 한다. 인구가 많을 때는 15가구였고, 팔금초 매도분교도 있었다. 27년 전, 김희영 씨의 자녀 둘이 매도분교의 마지막 학생들이었다. "시집을 때는 목포에서 배 타고 팔금 백계항에 내려서 종선 타고 왔어요." 38년 동안 교통이 많이 좋아졌으나 노두는 마지막 장벽이다. 88세의 시어머니를 병원 모시고 갈 때가 가장 불

편하다고.

매도를 오가다 2년 전 아예 정착한 김완순 씨는 여덟 살 손자와 함께 산다. 본도에 있는 팔금초에 매일 통학을 시켜주는 그는 바다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갯벌에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는지, 손자하고 노두에 앉아 한참을 봐요." 물때가 안 맞으면 등교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가고, 하교시간이 지나고도 노두 앞에서 물이 빠지길 한참 기다려야 하지만 그 시간이 모두 설렌다고. 김희영 씨는 "아이고~ 뭐가 설레. 노두 없애고 다리 놔야돼."하며 손자를 친다.

천사대교 야경을 보는 일, 썰물 때 무인도로 건너가 툇이나 소라를 따는 일은 매도살이의 즐거운 소일거리다. 그럼 노두는? 꼭 얄밋고도 고마운 존재다.

주민 김희영(왼쪽) 씨와 김완순 씨.



- 1 최근 발견된 매화마름 ©신안군.
- 2 섬 서쪽 끝의 서근리 등대.
- 3 다도해를 조망하는 채일봉 전망대.
- 4 노랑으로 채색한 마을.

1004섬과 손 잡으세요

신안군 국내외 연대 현황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뤄진 지자체이다. 언뜻 고립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섬’, 그러나 신안군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교류에 활발하다. 신안과 국내 지자체, 신안과 외국의 교류를 주도하고 더 나아가 신안군이 나서서 섬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기도 한다. 섬은 변방이 아니라 전진기지다. 신안군이 추진해온 최근의 주요 정책 흐름을 소개한다.

지난 5월 11~12일 신안 비금도에서 ‘2024 신안 삼막 예술축제’에서 신안과 프랑스 학생들이 공동공연을 펼치고 있다.





섬 없는 지자체들, 손 번쩍!

신안군 명예섬 공유제도

신안군은 섬이 없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섬을 공유해 주고 있다. 4년 전부터 본격 시작한 ‘신안군 명예섬 공유제도’다. 신안군은 2020년 ‘김해시의 섬 하의도’를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13개 시·군·구에 섬 공유를 추진했다.

신안군 명예섬 공유제도는 신안군의 섬 가운데 유인도 76개를 섬이 없는 내륙의 자매결연 지자체에 공유하고,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섬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매결연 지자체의 희망에 따라 무인도를 지정할 수도 있다.

대상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중에서 섬이 없는 지자체다. 해당 지자

체는 명예섬 상징조형물을 제작해 섬 초입에 설치한다. 신안군은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 26곳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중 13개 시·군·구가 명예섬을 공유했다. 최근 명예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예섬 공유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신안군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근거를 갖췄다. 조례에 따라 신안군은 자매결연 도시와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고, 민간단체의 교류를 지원한다.

국토 서남단의 섬인 흑산면 가거도는 경기도 평택시의 섬으로 지정됐다. 평택시

는 2024년을 ‘평택의 섬 가거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3월 가거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비금도를 명예섬으로 지정받은 충북 영동군은 지난 3월 영동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비금도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영동군 사회단체도 각 축제와 행사를 찾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압해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명예섬이 됐다. 신안군과 유성구는 지난 5월 22일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앞 바닷가에 명예섬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유성구를 비롯한 내륙의 지자체들은 아름다운 다도해에 자신들의 섬이 생겼다고 소속감을 느끼며 반가워하고 있다.

결연을 맺은 지자체들은 명예섬 탐방뿐 아니라 신안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사계절 꽃피는 섬정원 사업, 1섬 1뮤지엄 등 신안군의 대표 정책들을 배우러 오기도 한다. 이처럼 신안군은 명예섬 제도를 매개로 전국 지자체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 퍼플섬을 비롯한 홍도, 가거도 등 신안 천혜의 섬들을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

신안군은 자매결연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신안 자연휴양관(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숙박료 50% 할인, 6개 관광명소(압해 1004섬 분재정원, 자은 1004뮤지엄파크, 안좌 퍼플섬, 임자 1004섬 톨립·홍매화 정원, 암태 에로스서각박물관, 안좌 세계화석광물박물관) 입장료 100% 환급(신안1004상품권) 등이다. 향후 신안군은 여객선 운임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 [1004](#)

경기 평택시의 섬 가거도에 방문한 평택시 관계자들(왼쪽), 서울 은평구의 섬 자은도 표지석 제막식.





세계를 초대합니다

신안의 국제 연대 5가지 장면

#1

프랑스와 함께한 '2024 삼막 예술축제'

비금도 '나르발호' 사건에 착안, 교류 나서

지난 5월 11~12일 비금도에서 '2024 신안 삼막 예술축제'가 열렸다. 주한프랑스대사관, 프랑스 하비에르 국제학교, 서울 프랑스학교 등 프랑스와 신안군 관계자,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삼막'은 삼페인과 막걸리의 앞 글자를 땀다. 삼막 축제는 1851년 비금도 해역에 난파된 프랑스 어선 '나르발' 호 사건에 기반했다. 비금도 주민들이 프랑스 선원들을 한 달 동안 친절히 돌본 후 고국으로 배웅한 사건으로, 한-프 관계의 평화적 시작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역사는 프랑

스 파리 시테 대학교 동양학부 교수인 엠마누엘 후 교수의 노력으로 밝혀졌다.

신안 삼막축제는 당시 비금도 주민들이 열어주었다는 환송회 속 '삼페인과 막걸리'에 착안했고, 두 지역의 우호교류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11일에는 비금도 이세돌바둑박물관에서 개막식, 삼페인과 막걸리 시음, 프랑스와 신안 음식 체험을 비롯해 양국의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12일에는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학술대회 '한불 문화예술 교류의 광장, 비금도'가 열렸다.

신안군은 한·불 수교 140년을 앞두고 주한프랑스대사관과 협력해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비금면과 도초

면의 학교(비금초, 비금중, 도초고)와 서울 프랑스학교, 하비에르 국제학교와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양국의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다.

#2

2년 후 자은도에 모입시다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 유치

2026년에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 (Islands of the World Conferences)'가 신안 자은도에서 1주일간 열린다. 신안군은 '기후 위기, 섬의 회복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세계섬학술대회는 세계 섬 연구기구연합인 ISISA(International Small Islands Studies Association)가 2년마다 해외 주요 섬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세계 최

대의 섬 전문 학술회의다. 50여 국가에서 2,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제1회 세계섬학술대회는 1986년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렸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함께 제안서를 준비했고, 지난 4월 일본, 카리브 등 4개 국가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대회를 유치했다. 올해 제19회 학술회회는 6월 25~29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열렸다. 신안군을 주축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이 대회에 참석해 2026 세계섬학술대회를 홍보했다.

#3

세계 섬문화, 신안군이 직접 챙긴다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 두 차례 개최

그런가 하면 신안군은 직접 세계 섬문화 다양성 연구와 보존의 발신기지로 나서

1-2 지난 5월 비금도에서 열린 신안 삼막 예술축제.



3 2022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 4 올해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섬학술대회. 2년 후 개최지는 신안.



기도 했다. 신안군은 2022년 12월 자은도에서 제1회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신안군과 국회 섬발전연구회, 태평양관광기구가 주최하고,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 포럼은 세계의 섬 국가들이 각자의 섬문화를 유지하면서, 세계 여러 섬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섬 국가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지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태평양 섬 국가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기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포럼 기간 뜻을 모아 ‘퍼플섬 의정서’를 채택해 선언했다.

신안군은 이듬해인 2023년 10월 ‘문화의 달 신안’ 행사 기간 동안 자은도에서

두 번째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을 열었다.

#4

신안갯벌로의 초대

일본 갯벌 관리 관계자, 주한영국대사 등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 신안군은 세계적인 이 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갯벌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제 관계자들을 신안갯벌로 직접 초대해 홍보를 하기도 한다.

지난 5월 일본의 갯벌 관리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사가시, 가시마시, 아라오시 등 3개 지자체의 갯벌 관리 공무원들, 람사르 센터 부회장 등 6명이 신안갯벌을 둘러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신안갯벌과 일본 규슈 아리아케 갯벌은 생태계, 김과 어패류 양식 등 지역민의 생업, 지자체의 역할 등이 서로 비슷해 협력할 주제가 많다.

지난 5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일행도 신안갯벌을 찾았다. 일행은 맨손낙지잡이 등 전통어로를 체험하고, 1만 마리 팽이갈매기가 서식하는 무인도인 불무기도를 방문했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신안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과 신안군 갯벌관리정책을 청취하고, 압해읍에 들어설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부지를 방문하는 등 신안갯벌의 이모저모를 두루 견학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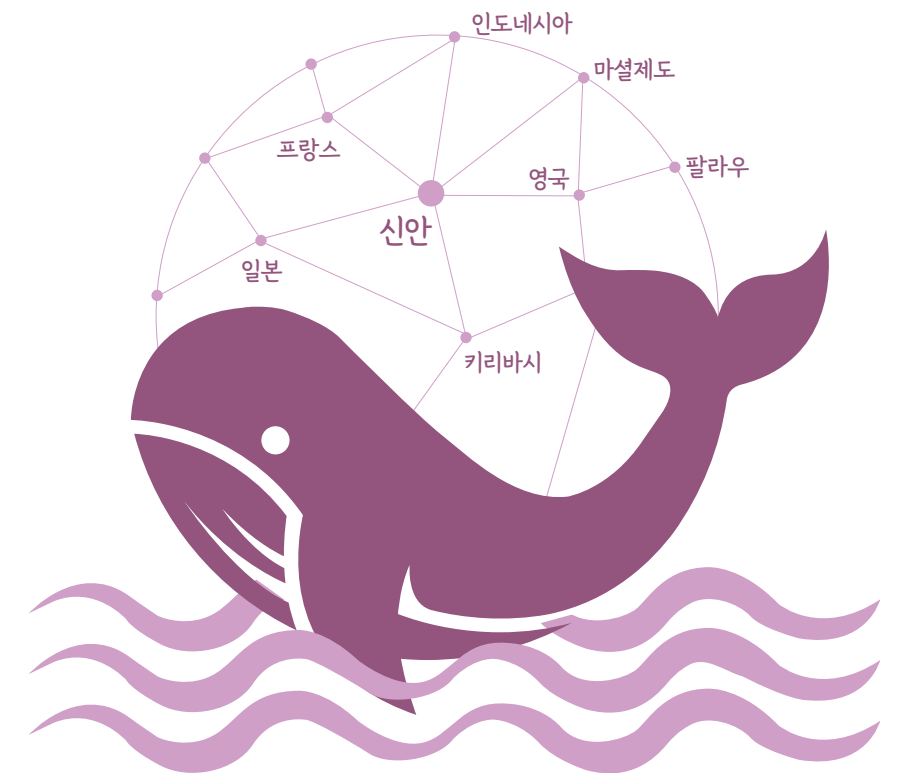
국제무대 위 신안, 특별한 조력자

김용호 전 대사, 외교자문 특별보좌관 임명

신안군은 지난 5월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용호 전(前) 대사를 신안군 외교자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용호 보좌관은 1986년 외무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2016년 주벨라루스 대사, 2019년 주루마니아대사를 역임한 후 2022년 정년 퇴임했다.

그는 오랜 외교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안군과 국제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신안군은 2년의 임기 동안 김 보좌관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004](#)

5 신안갯벌을 찾은 주한 영국대사 일행. 6 김용호 신안군 외교자문 특별보좌관 임명. 7 신안을 찾은 일본 공직자들.





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 추진, 주민 수익원 모색

신안군은 지난 5월 26일 (주)루트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신안군민펀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 과정에 전 군민이 직접 참여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펀드 모델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 신안군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 한도 확대 등 금융규제가 개선되고 있어 군민의 투자소득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100억 원을 달성했다.”며, “이제 한 단계 발전한 신안군민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주민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루트에너지는 앞서 강원도 태백 가덕산 1·2단계 육상풍력 발전사업에서 ‘태백시민펀드’를 조성했다. 그 결과 500여 명의 시민이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의 8~11%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친환경 기업과 손잡고 ‘플라스틱 없는 섬’ 만들어요

신안군은 지난 4월 ‘순환경제도시, 신안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플라스틱 제로 2050’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소비-처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신안군 농수산 부산물, 폐자원 등을 활용해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보급하기, 그리하여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 그리코(주식회사 라이스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코(Grico)는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쌀을 활용해 플라스틱 신소재와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선도 기업이다. 협약은 △친환경 제품 생산단지 설립 △개발 제품의 산업화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 추진 △신안군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천연자원 기반의 자연순환형 플랫폼 구축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안군은 「신안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안정원수협동조합, 전국·해외에 묘목 판로 열어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결성한 ‘신안정원수협동조합’이 지난 4월 19일 대림묘목농원(주) JB가든센터(이하 JB가든센터)와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JB가든센터는 국내 나무시장에서 가장 큰 농업회사법인이자 정원식물 수출입 유통사이다. 신안정원수협동조합은 이 유통사를 통해 주민들이 키운 묘목을 판매하게 된다. 묘목 생산을 시작한지 2년, 협동조합 출범 10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JB가든센터 김정범 대표는 “신안군 주민참여형 양묘소득사업의 지속가능성, 품종 관리의 우수성을 믿고 계약을 추진했다.”며 “해외시장에 우리나라 품종을 적극 수출하고 널리 알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사계절 꽃피는 섬정원 사업’으로 섬마다 특색있는 정원과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경관식물 묘목 생산을 장려하고, 관련 수익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원수협동조합 경관식물 생산에 3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관심이 높아 조합원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신안군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문의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 061-275-0601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 선정, 청년층 정착 지원

신안군이 지난 4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150억 원 규모다. 이 사업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신축하고,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압해읍으로 선정됐다. 압해읍은 교육,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고, 출퇴근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다. 사업 대상지 인근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공공기관 등이 있다. 이러한 생활기반 요소들이 사업 선정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신안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안정을 위한 연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1억 년 된 만재도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됐다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가 지난 5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만재도 주상절리는 흑산면 만재도 해안을 따라 노출된 응회암층에서 잘 나타난다. 섬의 남동쪽 해안과 부속섬인 녹도 등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파도와 바람의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침식 지형(해식애, 해식동굴, 씨 아치 등)도 발달해 있다. 특히 섬 남동쪽 장바위산 해안 절벽에는 수십 미터 규모의 주상절리가 잘 발달했다. 이 지형은 중생대 백악기(약 1억 년 전) 때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만재도 응회암층이다. 용결응회암의 형성 과정, 화산학적 특징 등과 관련해 학술 가치가 높다.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는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육각기둥이 뚜렷하고, 해안침식지형

과 잘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만재도 주상절리의 풍부한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 만재도는 흑산도에서 남쪽으로 52km, 목포에서 105km 떨어져 있는 먼바다의 섬이다. 접근성이 쉽지 않지만, 인기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 1~2’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있다. 70여 명의 주민은 미역 채취, 낚시어업 등을 하며 살고 있다.

주상절리란? 화산활동 중 지표로 나온 마그마나 화산재가 식으면서 수축되고 규칙적으로 갈라져 형성되는 화산암 기둥 무리. 광주·전남 무등산, 제주 중문 대포해안, 경주 양남, 포항 달전리, 포항 오도리 등 5곳의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다.

만재도 삼시세끼 어촌편.



주상절리.



만재도 전경.





제1기 신안군 청소년의회 마무리 ... 6개 정책 제안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지난 5월 3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기 신안군 청소년의회 본회의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의료시설 개편 정책 △이동 보건 서비스 확대 정책 △버스정류장 개선, 노선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버스 배차시간, 등하교 시간 수요에 맞게 조정 △신안군 도로 바닥 패임(포트홀) 해결 △공공도서관(독서실 개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총 6개의 정책 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본회의 폐회 후에는 18명의 청소년 의원 수료식이 진행됐다. 활동 기간에 청소년의회를 이끈 김민규(신안해양과학고 2학년) 의장, 이재동(신안해양과학고 1학년) 부의장, 손은서(신안해양과학고 1학년) 행정복지위원장, 김홍면(안좌고 2학년) 산업건설위원장, 김지호(안좌고 1학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범한(안좌고 2학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표창을 받았다.

‘신안의 미래’ 청소년참여위원회 2차 정기회의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6월 14일 압해읍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 16명이 참석해 정책 제안, 토론과 발표를 하며 의견을 나눴다. 회의 안건은 7월 중 목포시·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자원봉사활동, 하반기 중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인권 향상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정책 제안은 △도서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100원 배 지원 정책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청소년 전용 자율공간 지원 정책 등이다. 최종 선정된 안건은 전라남도과 신안군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안군장학재단 기탁 현황

기탁 기간 2024.3.16.~2024.6.19. 총액 63,885,000원

지정기탁 해주신 분들

- 도초 낭만식객(인성일) 5,000,000
- 신의면 전준면 5,000,000
- 미소농기계 강성진 5,000,000
- 광주은행노동조합 10,000,000
- 신안군조사료협회 10,000,000
- 신안군간재미축제위원회 5,000,000
- 도초면 문혜영 10,000,000
- 자은면여성단체협의회 5,000,000
- 신안대우병원 3,000,000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5,000,000
- 임자하나베이커리 박종운 500,000

정기후원 해주신 분들

김완수 모현경 최영택 최미영 최미 조영학 정창균 정은재 장희웅 장미희 양국진 박효선 박정배 박미선 김천일 김명기 김도남 김대현 김대중 김계형 곽호남 강기춘 탁권철 박성진

신안 장학기금 기탁하시려면

문의 (재)신안군장학재단 061-240-8777
후원계좌 농협 301-0165-0150-11 (예금주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



세계와 교류하는 신안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우량 군수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 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신안의 섬을 찾는 분들은 늘 많지만, 특히 여름은 경향 각지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004섬 신안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고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둘러싸여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근래의 신안군은 교통편의 증진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국내 각 지역 및 전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섬들을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와 함께 ‘명예섬’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안 1004섬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함께 누리고 섬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기 위

한 목적입니다. 김해시의 섬 하의도, 영동군의 섬 비금도, 양평군의 섬 안좌도, 평택시의 섬 가거도... 지금까지 총 13개의 지자체가 ‘명예섬 공유 제도’로 신안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까지 신안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안에 연수원 건립을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모두 ‘명예섬 공유 제도’의 효과입니다. 신안과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인연을 맺는 ‘명예섬 공유’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신안군 주도로 ‘태평양기후 위기대응협의회(Pacific Climate Crisis Response Council)’가 출범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중 기후 위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키리바시, 마셜제도, 팔라우 정부, 그리고 신안군이 뜻을 모아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2022년 12월 자은도에서 개최한 세계섬 문화다양성포럼이 협의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출범식 이후 협의회는 태평양 도서국 지원을 위한 기금과 구호물자를 조직하고, 신안 섬대학(로빈슨크루소대학, 개관 예정)에 대상 국가 학생들을 우선 초청해 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신안군은 2026년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섬 연구기구연합인 ISISA가 2년마다 해외 주요 섬 지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섬 전문학술회의로서, 50여 개국에서 2,000여 명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기후 위기, 섬의 회복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1주일간 신안군 자은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세계 섬 발전을 견인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섬을 세계에 알리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는 ‘2024 신안 삼막 예술축제’를 열어 프랑스와 신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샴페인과 막걸리 시음, 프랑스와

신안의 음식체험, 프랑스 국악인 ‘마포로르’가 부르는 판소리, 학술대회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축제는 1851년 비금도 인근 해역에 난파된 프랑스 어선 나르발호의 역사적 사건에 기반하여 기획됐습니다. 삼막 예술축제는 주한프랑스대사관과 협력하여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월에는 또 일본 지자체, 영국대사관, 람사르센터 관계자 등이 연이어 신안을 찾았습니다. 신안의 갯벌을 둘러보고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15년간의 노력과 비결 등을 현장에서 배우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국내 그리고 세계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신안군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함께해주신 군민들의 열의가 있어서 우리 신안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

신안군수 **박우량** 올림

